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문미영(한양대학교)*

황선영(한양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경북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인 278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과적응력, 성격강점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1%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과적응력, 성격강점으로 총 설명력은 19%였다. 따라서 개인의 태도와 심리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인 성격강점을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I. 서론

오늘날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더불어 간호사는 역할 확대에 의해 더욱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망과 전문성이 높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병원에서는 전문지식과 비판적 사고를 통한 상황 판단능력, 융통성 및 창의력 등을 갖추어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선호한다. 현재의 대학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간호중재를 제공할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제1저자

**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교신저자: seon9772@hanyang.ac.kr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신경아, 조복희, 2012).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대인관계가 시작되며, 학교사회에서 직업 세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박진아, 2014). 학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 습득과 대학생활 초기부터 취업에 대한 부담감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감의 감소, 성적저하 등이 발생하며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gnussen & Amundson, 2003). 이에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개인 내적인 에너지, 긍정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을 중심으로 개인이 가진 긍정적인 강점을 밝히고 개발시키는 것이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신정원, 장효정, 현명호, 2015). 이러한 개인의 강점은 간호대학생의 적응력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도 충분히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은 긍정심리학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 인간의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의미한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할수록 더 향상되고 풍성해지며 개인이 이러한 강점을 삶에서 발휘한다면 만족감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강점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성격강점은 간호대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학업만족도나 학교생활 전반을 비롯해 사고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성격강점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안녕과 최적의 기능 발현이라는 긍정 심리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임영진, 2010). 성격강점을 잘 활용한 프로그램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증진시켜 우울을 감소시켰다는 임영진(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스스로 성격강점을 파악하고 개발하여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이렇듯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제극복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격강점은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란 개인이 결정한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수준과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사람들에 의한 평가정도를 의미한다.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가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김계현, 하혜숙, 2000). 또한, 성격강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과 충동을 잘 통제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행동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신정원, 장효정, 현명호, 2015). 결국 전공만족도 향상은 간호직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의 간호활동 과정에서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2005). 간호대학생들에게 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간호 전문직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간호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지성애 외, 2000). 이런 발전적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통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인들과 조화를 이루며 양질의 간호 제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기 시작하고 임상실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순희, 정복례, 2004; Schank & Weis, 2001).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이 확립된 간호사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얻으며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간호사로 간호실무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위치를 확립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므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은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면, 전공정체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을 촉진하는 자기효능감 증진과 성격강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와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추출에 의하여 경북 소재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1학년은 간호학에 대한 전공교과보다는 주로 교양위주의 수업진행으로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표본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

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3개를 이용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119명이 산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중 278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충분한 수의 대상자가 확보되었다.

3. 연구도구

가. 일반적 특성(General characteristics)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김광수, 한선녀, 2015; 김지영, 2014; 박진아, 2014)에서 본 연구의 측정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성별, 학년, 종교, 전공선택 동기,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가족·친지 중 간호사 존재 여부, 학과적응력, 학과성적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s)

성격강점 측정도구는 Park, Peterson, & Seligman(2004)이 개발하고 김인자(2006)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혜와 지식 10문항, 인간애 6문항, 용기 8문항, 절제 8문항, 정의 6문항, 초월성 10문항의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48점에서 최고 240점으로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강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소정(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9이었다.

다.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보완하여 김계현, 하혜숙(2000)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만족 도구 중 이동재(2004)가 전공만족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으로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계현, 하혜숙(2000), 이동재(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1이었다.

라.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의 속성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29점에서 최고 145점으로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9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피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연구자가 속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개시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IRB No; 2016-05-004-001). 연구 시작 전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다.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비밀유지와 익명보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연구대상인 2개 대학교 간호학과를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허가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는 개별봉투에 봉인되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93부가 회수되어 97.7%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적절한 15부를 제외한 278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분석하며, 사후 분석방법으로는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4) 성격강점과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 5)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 6)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8)

일반적 특성	구분	n(%) or M±SD
연령(나이)		21.56±3.19
	≤20	120(43.1)
	21~25	142(51.1)
	26~30	11(4.0)
	≥31	5(1.8)
성별	남자	40(14.4)
	여자	238(85.6)
학년	2학년	109(39.2)
	3학년	97(34.9)
	4학년	72(25.9)
종교	기독교	72(25.9)
	천주교	17(6.1)
	불교	28(10.1)
	무교	161(57.9)
전공선택 동기	취업보장	98(35.3)
	전문성	57(20.5)
	적성	61(21.9)
	안정성	25(9.0)
	성적	9(3.2)
	가족의 권유	23(8.3)
	기타	5(1.8)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교우관계	15(5.4)
	전공수업	204(73.4)
	임상실습	42(15.1)
	기타	17(6.1)
가족·친지 중 간호사 존재 여부	있다	111(39.9)
	없다	167(60.1)
학과적응력	만족	130(46.8)
	보통	135(48.5)
	불만족	13(4.7)
학과성적	평균평점 ≤2.0	2(0.7)
	평균평점 2.1~2.9	38(13.7)
	평균평점 3.0~3.9	222(79.9)
	평균평점 ≥4.0	16(5.7)

연구대상자는 총 278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56±3.19세로 연령별로는 21~25세 이하가 142명(51.1%)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 40명(14.4%), 여자 238명(85.6%)이었

으며, 학년은 2학년이 109명(39.2%), 3학년 97명(34.9%), 4학년 72명(25.9%)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61명(57.9%)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보장 98명(35.3%), 적성 61명(21.9%), 전문성 57명(20.5%), 안정성 25명(9%), 가족의 권유 23명(8.3%), 성적 9명(3.2%), 기타 5명(1.8%)순이었다.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은 전공수업 204명(73.4%), 임상실습 42명(15.1%), 교우관계 15명(5.4%)이었으며, 가족·친지 중 간호사 존재 여부는 '없다' 167명(60.1%)이었다. 학과적응력은 보통이 135명(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과성적은 평균평점 3.0~3.9가 222명(79.9%)으로 가장 많았다<표 1>.

2. 대상자의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표 2> 대상자의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N=278)

변수	문항 수	가능범위	점수	최소값	최대값	M±SD
성격강점	48	48~240		2	5	3.46±0.35
지혜와 지식	10	10~50		2	4	3.40±0.39
인간애	6	6~30		2	5	3.70±0.52
용기	8	8~40		2	5	3.35±0.48
절제	8	8~40		2	4	3.30±0.43
정의	6	6~30		2	5	3.28±0.51
초월성	10	10~50		3	5	3.70±0.47
전공만족도	18	18~90		2	5	3.77±0.50
일반만족	6	6~30		1	5	3.65±0.67
인식만족	6	6~30		2	5	4.20±0.57
교과만족	3	3~15		1	5	3.39±0.72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	3~15		1	5	3.52±0.74
간호전문직관	29	29~145		2	5	3.79±0.43
전문직 자아개념	9	9~45		2	7	3.89±0.53
사회적 인식	8	8~40		2	5	3.69±0.52
간호의 전문성	5	5~25		2	5	3.93±0.51
간호실무의 속성	4	4~20		2	5	3.92±0.53
간호의 독자성	3	3~15		1	5	3.31±0.84

대상자의 성격강점의 총합 평균점수는 3.46±0.35점(범위 2~5)이었으며, 하부영역별 점수는 초월성 3.70±0.47점, 인간애 3.70±0.52점, 지혜와 지식 3.40±0.39점, 용기 3.35±0.48점, 절제 3.30±0.43점, 정의 3.28±0.51점으로 초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총합 평균점수는 3.77±0.50점(범위 2~5)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별 점수는 인식만족 4.20±0.57점, 일반만족 3.65±0.67점,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52±0.74점, 교과만족 3.39±0.72점으로 인식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총합 평균점수는 3.79±0.43점(범위 2~5)이었으며, 하부영역별 점수는 간호의 전문성 3.93±0.51점, 간호실무의 속성 3.92±0.53점, 전문직 자아개념 3.89±0.53점, 사회적

인식 3.69±0.52점, 간호의 독자성 3.31±0.84점으로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은 연령, 학년, 전공선택 동기,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학과적응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은 21~25세가 20세 이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3.50, p=.016$), 학년은 4학년이 2,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9.56, p<.001$). 전공선택 동기는 적성이 가족의 권유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3.94, p=.001$).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은 교우관계가 기타로 분류된 많은 과제와 시험 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52, p=.016$). 학과적응력은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22.48, p<.001$). 전공만족도는 학년, 전공선택 동기, 학과적응력, 학과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은 4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3.33, p=.037$), 전공선택 동기는 전문성과 적성이 취업보장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7.22, p<.001$). 학과적응력은 보통이 만족보다 낮았고 불만족보다 높았다($F=71.10, p<.001$). 학과성적은 평균평점 3.0~3.9가 평균평점 2.1~2.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37, p<.001$). 간호전문직관은 전공선택 동기와 학과적응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선택 동기는 전문성이 취업보장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4.22, p<.001$), 학과적응력은 보통과 불만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24.36, p<.001$)<표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N=278$)

일반적 특성	구분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연령(나이)	≤20 ^a	3.39±0.31	3.50	3.75±0.49	0.49	3.85±0.38	2.00
	21~25 ^b	3.51±0.36	(.016)	3.78±0.49	(.689)	3.75±0.44	(.114)
	26~30 ^c	3.35±0.47	a<b	3.68±0.73		3.61±0.58	
	≥31 ^d	3.63±0.29		3.98±0.27		3.92±0.26	
성별	남자	3.48±0.40	0.44	3.64±0.56	-1.76	3.73±0.39	-0.85
	여자	3.45±0.34	(.664)	3.79±0.49	(.079)	3.80±0.43	(.398)
학년	2학년 ^a	3.43±0.32	9.56	3.77±0.47	3.33	3.84±0.37	2.85
	3학년 ^b	3.38±0.34	(<.001)	3.69±0.49	(.037)	3.70±0.44	(.059)
	4학년 ^c	3.60±0.37	a, b<c	3.89±0.53	b<c	3.82±0.47	
종교	기독교	3.51±0.37	3.13	3.86±0.48	2.30	3.81±0.38	0.94
	천주교	3.60±0.38	(.051)	3.93±0.41	(.077)	3.83±0.34	(.422)
	불교	3.53±0.29		3.78±0.55		3.66±0.46	
	무교	3.41±0.34		3.71±0.50		3.80±0.45	

전공선택 동기	취업보장 ^a	3.41±0.34	3.94	3.65±0.47	7.22	3.70±0.41	4.22
	전문성 ^b	3.54±0.32	(.001)	3.97±0.43	(<.001)	3.94±0.38	(<.001)
	적성 ^c	3.57±0.37	c>f	3.93±0.47	a<b, c	3.86±0.44	a<b
	안정성 ^d	3.42±0.34		3.75±0.51		3.87±0.41	
	성적 ^e	3.52±0.37		3.16±0.65		3.46±0.32	
	가족의 권유 ^f	3.27±0.27		3.58±0.39		3.62±0.43	
	기타 ^g	3.54±0.30		3.88±0.68		3.76±0.45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교우관계 ^a	3.22±0.35	3.52	374±0.55	0.70	3.64±0.44	0.97
	전공수업 ^b	3.46±0.34	(.016)	3.75±0.50	(.553)	3.81±0.42	(.406)
	임상실습 ^c	3.48±0.33	a>d	3.80±0.53		3.73±0.41	
	기타 ^d	3.61±0.40		3.93±0.41		3.83±0.48	
가족·친지 중 간호사 존재 여부	있다	3.48±0.37	1.07	3.76±0.49	-0.40	3.79±0.42	0.16
	없다	3.44±0.34	(.288)	3.78±0.51	(.693)	3.78±0.43	(.877)
학과적응력	만족 ^a	3.59±0.33	22.48	4.07±0.38	71.10	3.95±0.39	24.36
	보통 ^b	3.35±0.32	(<.001)	3.55±0.42	(<.001)	3.66±0.39	(<.001)
	불만족 ^c	3.19±0.34	a>b, c	3.12±0.55	a>b>c	3.43±0.53	a>b, c
학과성적	평균평점 ≤2.0 ^a	4.03±0.19	3.81	4.39±0.31	6.37	4.05±0.07	0.76
	평균평점 2.1~2.9 ^b	3.38±0.30	(.051)	3.48±0.59	b<c	3.72±0.43	(.518)
	평균평점 3.0~3.9 ^c	3.45±0.35		3.80±0.47		3.79±0.43	
	평균평점 ≥4.0 ^d	3.63±0.33		3.90±0.40		3.86±0.35	

4.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격강점과 전공만족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48, p<.001$). 성격강점과 간호전문직관과도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34, p<.001$),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과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56, p<.001$)<표 4>.

<표 4>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N=278)

변수	성격강점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r(p)	r(p)	r(p)
성격강점	1	.48(<.001)	.34(<.001)
전공만족도		1	.56(<.001)
간호전문직관			1

5.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표 5>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N=278)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전공만족도	(상수)	2.91		10.45	<.001
	학과적응력	-.40	-.47	-9.49	<.001
	성격강점	.43	.30	6.10	<.001
Adj. R ² =.41, F=98.97, p<.001					
간호전문직관	(상수)	3.19		11.42	<.001
	학과적응력	-.22	-.30	-5.19	<.001
	성격강점	.27	.23	3.86	<.001
Adj. R ² =.19, F=32.98, p<.001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전공선택 동기, 학과적응력, 학과성적을 포함하여 성격강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의 회귀 모형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으로 2와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0.84~0.99로 0.1 이상,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1~1.16으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었다. 영향력 분석을 위한 Cook's Distance가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으며, 잔차에 대한 분석결과 오차사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과 모형의 선형성이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과적응력($\beta=-.47$, $p<.001$), 성격강점($\beta=.30$, $p<.001$)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설명력은 41%였다. 따라서 학과적응력과 성격강점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98.97$, $p<.001$). 간호전문직관의 회귀모형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로 2와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0.86~0.99로 0.1 이상, VIF는 1.01~1.16으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영향력 분석을 위한 Cook's Distance가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으며, 잔차에 대한 분석결과 오차사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과 모형의 선형성이 확인되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과적응력($\beta=-.30$, $p<.001$), 성격강점($\beta=.23$, $p<.001$)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설명력은 19%였다. 따라서 학과적응력과 성격강점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32.98$, $p<.001$)<표 5>.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격강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과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격강점 점수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40 ± 0.35 점이었으며, 초등학생 대상의 김광수, 한선녀(2015)의 연구에서는 3.36 ± 0.74 점, 간호사 대상 이소정(2015)의 연구 3.50 ± 0.32 점, 보육교사 대상 이용옥(2015)의 연구에서는 3.34 ± 0.61 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과 직종, 개인의 다양하고 독특한 성격강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초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옥(2015), 최은환(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초월성은 인생과 세상을 대하는 초월적인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삶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미와 희망을 갖도록 도와준다(김지영, 2014). 이러한 초월성은 현상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 의미를 가지고 신념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 점수는 평균 3.77 ± 0.50 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 1, 2, 3학년 대상의 연구(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3.56 ± 0.50 점, 간호대학생 1학년 대상의 연구(조인영, 2014) 3.61 ± 0.49 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1학년은 전공교과에 대해서 아직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태로 전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하부영역별 점수는 인식만족 4.20 ± 0.57 점, 일반만족 3.65 ± 0.67 점,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50 ± 0.74 점, 교과만족 3.39 ± 0.72 점으로 인식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인영(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전공선택에 있어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간호직이 전문직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취업만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교수-학생간의 관계에서는 친밀한 유대관계가 부족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추가 연구를 통해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3.79 ± 0.43 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은경, 지은주(2016)의 연구에는 3.70 ± 0.42 점, 조현화, 김남희(2014)의 연구에서는 3.59 ± 0.45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에 현실충격을 극복하고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사회화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도 더

명확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부영역별로는 간호의 전문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은경, 지은주(2016)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간호학생들이 간호의 전문적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간호직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형성을 위해서 간호학에 대한 태도 및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간호전문직의 직업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간호의 독자성인 낮은 이유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의사와의 협력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 세분화되고 확대되면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추후에 반복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변량 분석에서 성격강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학년, 전공선택 동기,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학과적응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강점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전공만족도는 학년, 전공선택 동기, 학과적응력, 학과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문희, 김혜옥(2016)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전공선택 동기, 학과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급격히 변화되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매년 더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전문직이 주는 이점과 매력보다는 취업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진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과성적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고 전공선택 동기와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선택 동기와 학과적응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박현주(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전공선택의 동기에 있어서 외부 환경보다는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학과적응에 만족감을 보이며, 간호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긍지를 가지게 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도 높아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선행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여 신중하게 전공 및 진로 선택에 적용한다면 자아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복감과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도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에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박현정, 오재우(2014), Martin, Yarbrough, & Alfred(2003)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직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인격과 태도, 자세 등과 관련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임상에서 신규간호사로 일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현실충격과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어서 조기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학과적응력과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과적응력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므로 학업성취도 및 학습효과를 높여준다. 또한 진로와 취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호대학생들의 학과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선배, 친구, 부모 등의 다양한 지지그룹의 활용과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고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의 태도와 심리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인 성격강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면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격강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경북 소재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점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를 국내의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응답자의 자가보고에 의한 설문과 횡단적 설문조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과성 추정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방 소재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은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예측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성격강점을 찾아내고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 교과과정 및 교과외 활동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지역과 대학의 수준을 고려한 반복연구와, 간호대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학년 간 성격강점의 수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을 발굴,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활용하여 효과를 검증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순희, 정복례(2004).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 **간호행정학회지**, 10(3), 335-344.
- 김계현, 하혜숙(2000). 대학생의 學科(學部)滿足의 要因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 김광수, 한선녀(2015). 초등학생의 희망직업과 성격강점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14(4), 497-517.
- 김인자(2006). 유치원 교사의 성격 특성과 역할수행능력 인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및 덕성과 성격장애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11), 75-99.
- 남문희, 김혜옥(201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263-273.
- 박진아(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자기조절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정, 오재우(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2(12), 417-426.
- 박현주(2015). 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2), 227-236.
- 신경아, 조복희(2012).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9(1), 46-56.
- 신정원, 장효정, 현명호(2015). 대학생의 성격강점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와 정서조절 양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연구**, 23(3), 109-118.
-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한국간호과학회**, 35(6), 1091-1100.
- 이동재(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적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정(2015).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전문직업성, 팔로워십 및 성격강점의 구조모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옥(2015). 보육교사의 성격강점 및 직무스트레스와 역할수행 간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지은주(2016).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본간호학회지**, 23(2), 126-135.
- 임영진(2010). 성격 강점과 긍정 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201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정체감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 27-36.
- 조인영(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5(5), 2937-2945.
- 조현아, 김남희(2014).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 직업성 핵심요소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4), 548-557.
- 지성애, 문희자, 한성숙, 김문실, 권성복(2000). **간호관리학 1. 간호사 전문간호직업론·간호철학·윤리학**. 서울: 수문사.
- 최은환(2015). 중학생의 성격강점과 Holland 진로유형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agnussen, L., & Amundson, M. J. (2003).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xperience. *Nursing and Health Science*, 5(4), 261-267.
- Martin, P., Yarbrough, S., & Alfred, D. (2003). Professional values held by baccalaureate and associate degre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5(3), 291-296.
- Park, N. S.,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Schank, M. J., & Weis, D. (2001).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of Nursing in Professional Development*, 17(5), 226-231.

논문 접수: 2016년 7월 9일

논문 심사: 2016년 8월 20일

게재 승인: 2016년 8월 26일

<ABSTRACT>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Mun, MiYeong · Hwang, SeonYoung(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78 nursing students from 2 institution of university students studying the department nursing science in Gyeong-buk. by means of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about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from June 17 to May 30,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he major adjustment, character strength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jor satisfaction. The explained variance for major satisfaction was 41%. The major adjustment, character strength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e explained variance for nursing professionalism was 19%. If recognizing to character strength of the positive that can give a change in the individual's attitude and psychological state, It can help to establish is increasing major satisfaction and would be able to help establish the desired nursing professionalism.

★ **Key words:** character strength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